

당대 중국 '청년의 소멸'과 정서적 구조의 변동*

고윤실**

<目 次>

1. 들어가며
2. '유동적 근대'와 청년의 소멸
3. 당대 중국 청년의 분화
 - 1) 세대와 세대문화
 - 2) 속물적 주체의 탄생: '다오쓰(屌絲)'와 '투하오(土豪)'
4. 당대 청년들의 정서구조
 - 1) 성찰의 부재와 진정성의 소멸
 - 2) 청춘회고: 우울, 자조 그리고 낭만적 자아
 - 3) '萌'문화의 유행: '동물화된 귀여움'과 '사목적 권력'의 내재화
5. 나가며

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근대초기에는 새로운 모순이 생겨나던 시기였고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정과 에너지로 응집된 시기였다. 이 시기 '청년'은 새로운 국가, 사회, 정치, 문화를 창조하고자 했던 낙관적 전망이 호명한 저항과 파괴, 창조와 열정의 주체였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통해 정치와 연대의 양식을 끊임없이 발명하며 역사의 변곡점을 그려내는 저항의 상징적 주체였다. 청년들의 20세기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비교적 단단했고, 자본과 노동력의 결속도 견고했다. '청년'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발전을 이끌고 민족문화 창

* 이 논문은 2016년 4월 30일 중어중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중문과 강사.

달을 위한 참여의 열정으로 단결된 거대한 변혁의 에너지였으며 창조적 파괴자였다.

그러나 21세기의 청년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청년들은 더 이상 공동체 의식과 공동의 이익을 통한 구심점을 만들지 않게 되었고 각자 존재하는 우리로, 홀로 소멸하는 개인으로 과편화되었다. 이는 문화현상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저항과 반항의 하위문화는 취향과 개성으로 소비되고 청춘은 상품화된다. 이상주의와 계몽주의로 가득 차 있던 반항정신은 속물적 정서에 길들여지고 청년은 먹고사느라 바쁜 '속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 속물에 대열에서 밀려난 이들은 그 대열에 참여하길 바라는 '잉여'가 되었다. 이들은 내재적 반성과 성찰을 통해 성숙했던 청년은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세대구분에 의해 지칭되었으며 대중문화 소비의 주체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당대 중국에서 관찰되는 대중문화 현상을 통해 '80후 90후 세대'를 중심으로 청년 주체가 잉여와 속물로 조락(凋落)하였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의 소멸'이라는 현상 뒤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의 유연화 현상을 세계적 경제 변화의 틀과 중국의 특수 상황에서 설명하며, 이를 통해 형성된 치열한 생존 경쟁과 불안정의 정서를 분석한다. 속물과 잉여로 과편화된 개인이 사회적 질서와 체제 안에 스스로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생명권력으로서 '사목적(司牧的) 권력'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를 반영하고 있는 징후가 바로 '萌文化'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물화된 당대 사회에서 과연 정치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2. '유동적 근대'와 청년의 소멸

지난 20세기는 청년의 시대였다. 청년이 사회적 계층으로 등장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 근대가 시작되면서였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집결하게 되면서 거대한 하나의 정체성의 덩어리를 형성

했다. 이렇게 서구에서는 노동자 권익운동으로부터 청년의 사회적 지위가 생성되었지만,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정치에 저항하면서 현대화의 영향력에도 맞서야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의 청년들은 반제 반봉건을 동시에 추구해야 했고, 이와 더불어 입국(立國)과 새로운 문화건설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서구식 고등교육을 받았고 비판적 정신으로 무장했던 엘리트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중국의 5.4 운동과 한국의 3.1 운동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청년은 “미숙한 유년기(전근대)로부터 벗어남(각성/성장)과 동시에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미래 건설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으며 새롭게 소환”되었다.¹⁾ 이들은 격동의 20세기를 이끌어온 저항과 투쟁, 그리고 창조적 열정의 주체였다. 20세기 초의 제국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구망(救亡)과 입국(立國)의 주체였고, 새로운 문화와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창조적 열정의 신청년(新靑年)이었다. 때로는 과거와 철저히 단절하고자 하는 창조와 파괴의 열정을 분출시키기도 한 운동의 주체였다. 그리고 개혁개방의 새바람을 타고 서양의 사조와 사상을 배워 사회와 문화 건설에 참여하고자 했던 문화열의 주체였으며, 정치 민주화의 열망이 억압에 부딪쳐 좌절을 맛보기도 했던 광장의 주체였다.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출현한 ‘청년’은 저항과 반성을 통한 사회 변혁의 추동력으로서, 정치적 삶의 창조자로서 그 사회적 지위를 확보했다.

그리고 세계 근대 자본주의의 축적순환의 형성과 해체가 몇 번 반복되었고 동아시아를 비롯한 현재의 우리 시대 역시 이 세계사적 자장 안에서 20세기 중반으로 진입하게 되었다.²⁾ 산업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자본을 부단히 재생산하고 축적해야 했고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필요했다. 노동자 역시 현대화 추세에 맞추어 도시로 대거 유입되었으며 일자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자본과 노동의 결합이 상호 의존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했다. 기업은 성장을 위해 노동자 지배와 억압의

1) 민정기, 『梁啓超의 ‘少年中國設’ 독해 — ‘소년/청년’ 소환의 중국적 맥락에 대한 고찰』, 『중국현대문학』 50집, 2009년 9월, 7-8쪽.

2) 강내희, 『근대 세계체제에 대한 68혁명의 도전과 그 현재적 의미』, 『문화과학』 2011년 9월호, 문화과학사, 57-89쪽.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이는 노동자들이 서로 결속하여 자신의 요구를 키울 수 있는 장을 형성시켰다. 노동조합이 생겨났고 무력한 개인이 단결하여 단체협상력을 만들어내고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했다.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단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공동의 이익’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기에 정치적 지향성을 떨 수 있었다. 이들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청년문화’로 불리며 저항과 젊음의 상징이 되었다.

세계는 자본과 노동의 강력한 결합에 의해 유지되었던 ‘무거운 근대’ 혹은 ‘정통 자본주의’의 질서를 빠르게 벗어났으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느슨해진 ‘유연성’의 시대, 즉 ‘유동적 근대’에 진입하게 되었다.³⁾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약 30년 간 자본의 축적과정을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달성시켰다. 도시화와 중국식 시장경제가 수반하는 부작용과 위기 극복을 위해 농촌의 노동력이 조국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원되었고, 국가 역시 혁명 이데올로기를 통해 대중동원에 대한 설득의 논리를 제공하여 국가의 기초 자본을 집중적으로 건설했다.⁴⁾ 토지는 국가에 의해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동원 가능한 자원이었으며 토지에 대한 집체적 소유권이 점차 와해됨에 따라(集體土地承包法的 실시) 농민들은 토지에서 유리되었다. 이로 인해 ‘80후’ 또는 ‘90후’의 농민공은 고향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전 세대 도시 농민공들과는 달리 오로지 노동력만 보유한 도시의 유동 인구로 전락하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도시의 1세대 농민공의 자녀 세대이거나 혹은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서 대학교육을 마치고 취업한 화이트 컬러 계층이다.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며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노동력 저수지가 되었고, 계층 간의 갈등, 거주 문제, 빈부격차 문제는 점차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적 모순으로 변화’하게 되었다.⁵⁾

3) ‘무거운 근대’라는 말은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 근대’, ‘유동적 근대’와 구분되는 ‘전통 시장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액체근대’ 혹은 ‘유동적 근대’란 ‘자본과 노동이 완전히 결별한 유동적인, 분산된, 흩어진, 탈규제적인 근대성’의 시기를 말한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 변화에 대한 지그문트 바우만의 논의를 알아보려면, 「노동의 흥망성쇠」를 참고. 지그문트 바우만, 홍지수 옮김,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2013년. 33~53쪽. 요약 발췌.

4) 원테켄 저, 김진공 역, 『백년의 급진』, 파주: 들베개, 2013년, 53쪽. 요약 발췌.

5) 원테켄 저, 김진공 역, 『백년의 급진』, 파주: 들베개, 2013년, 56쪽.

다른 한편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현대화와 경제발전에 치중한 이른바 중국식 시장주의는 전 지구적 경제 질서에 편입되면서 금융경제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에 서서히 진입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의식 향상과 정당한 권리 획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빠른 속도로 세계적 경제 구조 속으로 재편되었다. 당대 사회의 금융경제의 전 지구적 확산은 자본과 노동의 결속력을 약화시켰으며 그 결과 유연한 노동력을 만들어내었다. 중국은 고속성장의 자본의 축적의 시기를 지나 중저속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자본과 노동의 견고한 결속이 느슨해졌다. 금융 자본의 과잉으로 주식시장을 통해 넘쳐나는 잉여자본은 부동산 개발과 투기를 부추겼고, 이로 인해 돈이 돈을 낚는 승자독식 모델의 결과물인 '줄부'층이 형성되었다. 또한, 사회 질서는 점점 견고해지고 경쟁은 치열해지는 반면, 노동의 유연화는 단기고용과 불안정고용의 형태로 드러났다. 수많은 자살자를 양산한 중국 전역의 팩스콘 공장은 이러한 경제체제에서 노동자가 얼마나 쉽게 착취당하고 손쉽게 해고당할 수 있지를 보여준다. 그 곳의 노동자들은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적 저항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회사는 그저 잠시 머물다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한다.⁶⁾ 서로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구심점이 되어주었던 사회주의의 집단체제는 와해되었다. 도시의 화이트칼라계층도 마찬가지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불안감을 양산하고 이는 화합보다는 소극적 개인을 양산해냈다. 두려움, 걱정, 불만의 정서가 만연해졌고 정치 참여와 저항의 낭만적 열망은 생존의 늪에 매몰되어 생기를 잃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중국에서도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관적 논조가 나오기 시작했다.

저항과 창조적 열정으로 가득했던 청년의 몰락은 특히 대중문화의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의 청년은 5.4 이후 중국 현대의 역사 과정에 참여했다. 중국의 청년은 문혁시기의 '홍위병'이든, 상산하향의 '지식청년'이 되었던 중국 사회주의 혁명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는 사회주의 신시

6) 팩스콘 공장의 노동현장에 관한 내용과 노동자 인터뷰를 참고함.
 呂途, 『中國新工人：文化與命運』. 法律出版社, 2015年. 3-20쪽.

기의 건설이라는 과업에 동원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 대중문화의 주체로 문화적 신분을 갖추게 되면서 정치, 문화 등 권력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⁷⁾ 그러나 21세기 당대 중국의 청년들은 이전 선배 청년 세대와는 달리 자본과 노동의 모순을 바탕으로 형성된 '노동자로서의 자기인식'을 갖추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동자 문화' 혹은 '노동문화'의 형성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제 대중문화는 더 이상 청년문화로 일컬어지지 않으며, 청년의 저항과 하위문화의 다양한 특징마저 청춘을 소비하는 심미적 감성으로 대체되었다. 21세기 들어 하위문화, 엘리트문화, 유행문화, 저항문화 등은 개성의 추구하고 개인적 취향의 표현이라는 상업적 대중문화의 하위 범주로 포함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었다.⁸⁾ 그리하여 청년문화가 갖고 있던 이상주의와 계몽주의의 색채는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⁹⁾ 대중문화 영역에서 청년문화는 취향과 개성을 소비하는 '청춘문화'로 대체되었다. '청춘'은 상품화되었으며, 청년은 이제 '청춘문화'의 소비자가 되었다.

3. 당대 중국 청년의 문화

1) 세대와 세대문화

청년이라는 말은 이전만큼 반항과 정치적 지향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물론 지식청년과 분노하는 청년의 줄임말인 '지청(知青)'과 '분청(憤青)'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지청과 분청은 당대 중국사회에서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쓰이는데,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사고방식에 과묵했거나 자신이 처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는 도시청년을 지칭한다.¹⁰⁾ 이 단어는 본연의 청년의 의미보다는

7) 葛红兵, 姚新勇, 王韬: 「九十年代青年本位文化三人谈」, 『青年探讨』, 1997年04年, 4쪽.
8) 趙雅妮·劉海, 「青年文化的變奏: 從青年的反叛到青年審美的文化消費」, 『北京青年政治學院學報』, 2012年 01期, 35쪽.
9) 周誌強, 「青春文化高開青年文化低走」, 『東方早報』, 2009年 5월4일.
<http://news.sina.com.cn/pl/2009-05-04/083517739436.shtml>

주변인(邊緣人), 불만분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전환되었다.¹¹⁾ 당대 청년은 이제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의미의 청년이라고 불리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되고 지칭된다.

당대 중국 대중문화의 지형에서 중국 청년들을 지칭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출생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세대의 계층적 특성에 따라 자녀세대의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 등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집단이 가진 문화적 스타일과 생활방식, 그들만이 가진 문화적 의례 등으로 구분짓는 것이다. 이 구분법에 따라 중국의 청년들을 '80/90後 세대'로, '農二代, 富二代, 官二代'로, 그리고 각종 '~族'이라며 청년을 호명한다. 이런 구분 방식은 청년이라는 말이 가졌던 저항과 변혁이라는 정치적 함의와 같은 것을 띤 것이 아니다.

'~後'는 특정 생물학적 나이의 범주와 세대 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경험과 정서를 기준으로 구분지은 것이다. 1980년대 출생자는 부모세대와는 달리 혁명과 전쟁의 직접적 경험이 없고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이 시작되는 시기 유년을 보냈으며, 고속경제성장과 연성문화(軟性文化)의 영향 하에 1990년대의 10대를 보냈고, 대중문화와 소비문화가 꽃을 피운 2000년대에 20대를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사의식과 비판의식을 갖추고 있으며, 유연하면서도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1990년대 출생자는 고속경제성장 시기에 경제적으로 유복한 유년을 보냈으며, 대부분 1자녀 정책으로 인해 '소황제(小皇帝)'로 자랐기 때문에 이기적이며, 현대화와 도시화가 완성단계에 이르고 인터넷과 스마트 폰 등 발전된 뉴 미디어 환경에서 10대를 보냈다. 이들은 이전 시기보다 치열해진 경쟁과 생존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스타일, 경험, 정서를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된 집단구성을 이룬다. 예를 들어 90후는 95후, 00후와 세분화된 구분을 함으로써 서로 다른 개성과 스타일 그리고 정체성을 중요시 한다.

'~二代'는 부모세대의 사회적 위치와 부와 권력에 따라 자식 세대의 운명이 결

10) 王建光: 「義憤: 從一種群體心態到話語力量的轉變—對當代中國憤青的一種文化解讀」, 『當代青年研究』, 2009年01期.

11) 王建光: 「義憤: 從一種群體心態到話語力量的轉變—對當代中國憤青的一種文化解讀」, 『當代青年研究』, 2009年01期.

정되는 사회적 계층 간 존재하는 차별적 분파로 구분되었다. 특히 이러한 '이대론(二代論)'은 계층 간 이동이 줄어들었으며 계층화가 계급화로 고착되고 있다는 사회 정치적 담론과 연결되어 있다. 비슷한 예로 한국의 '수저계급론'이 있다. 출신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말로,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견고한 계층 간의 간의 좁혀지지 않는 두꺼운 벽을 나타내는 말이다. 팡팡(方方)의 소설 『투쓰창의 비애(途自強的個人悲傷)』에서는 당대 중국의 '농이대' 청년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도시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음을 비극적으로 그려 중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위에광족(月光族)', '개미족(蟻族)', '컨라오족(啃老族)', '딸기족(草莓族)'...등 '~族'은 영국의 문화연구 범주에서 '핑크족', '오토바이 족', '모드 족', '스킨헤드족' 등 청년 하위문화의 스타일 별로 구성하는 구성법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 일상생활의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 '위에광족'은 한 달 수입을 그달 다 소비해버리는 소비 위주의 생활 방식, 혹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사는 젊은이들의 심리상태를 반영한 말이며, '컨라오족'은 주로 취업을 미루며 나이든 부모에게 의존하여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는 23~30세의 연령층의 젊은이들을 말한다. 또한 '개미족'¹²⁾은 도시의 복잡하고 좁은 곳에 거주하며 직장 충성도가 높고 아무리 고된 일과 긴 노동시간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감내하는 농민공, 기술직 노동자, 저소득 직장에 종사하는 대학 졸업자 및 도시의 서민을 포함하는 일군의 시민계층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이 주거하는 곳은 도시의 비좁은 골목길에 다닥다닥 붙어 있고 또 생활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의미에서 '달팽이 집(蝸居)'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특히 저소득 직장에 종사하는 도시의 고학력 젊은이들이 모여서 집단 거주촌을 형성한 곳을 '개미집(蟻居)'이라고 부른다. '딸기족'은 선명한 빛깔에 비해 시고 뚝은맛이 있다는 비유로 소비성향이 강하고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는 90후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그 밖에, 소비위주의 삶과 안일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젊은이들을 소자산계

12) '개미족'으로 바이두 검색. 2016년 10월 15일.

<http://baike.baidu.com/item/%E8%9A%81%E6%97%8F/403?fr=aladdin>

급의 줄임말로 '샤오쯔(小資)'라고 부르며, 이들이 즐기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우며 청춘의 풋풋함과 신선함의 스타일을 나타내는 '샤오칭신(小清新)'이라는 말은 청춘과 젊음의 활력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되었고,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는 생활의 태도를 '샤오취에싱(小確幸)'이라고 부른다. 당대 중국의 청년은 극심한 계층의 양극화와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불안한 미래를 저당잡힌 채 살아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화된 젊음과 청춘을 소비하는 대중문화적 감성을 갖고 있다.

2) 속물적 주체의 탄생: 다오쓰(屌絲)와 투하오(土豪)

중국 사회는 1970년대 후반 흑묘백묘론과 선부론을 앞세워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했고, 1990년대 이르러 일부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이른바 '성공인사'라 부르는 사람이 출현했다. 이들은 못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존재하는 축적과 소비를 위한 야심과 이기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험함과 집요함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반쪽 얼굴'로, 이들이 이룬 성공을 '반쪽 얼굴의 신화'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1990년대의 '성공인사'는 속물적 면모를 애써 감추어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비록 '성공인사'를 당대 중국사회에 출현한 속물의 원형이라 하여도, 그에게는 적어도 부끄러움에 기반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내재했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속물적 정서는 이제 중국 당대 사회전반에 널리 자리 잡게 되었다. 청년 뿐 아니라 도시의 화이트칼라에서부터 농촌의 촌부에 이르기까지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일생을 바칠 수 있으며, 이것을 위한 적나라한 추구는 다른 가치에 우선하며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정서적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사고방식, 사람 사이의 관계, 일상생활 방식 등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현대화와 금융경제의 확산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했고, 이에 따라 미래가치를 현물화 하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

서 수많은 졸부가 탄생했다. 이들은 우연히 갖고 있던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벼락부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대개 계산에 치밀하며 추세의 흐름과 유행에 편승할 줄 아는 총명함을 지녔다. 자본과 노동의 견고한 결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임대업과 부동산 투자를 하여 또 돈을 벌린다. 이들은 본래 문화적 바탕이 부족하며, 경제적 호기를 이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증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들은 저속한 취향을 갖고 있지만 특별한 문화적 개성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부유함과 고급스러움의 이비투스를 모방하고 추종한다. 그 과장된 금전적 과시와 자기애는 인터넷상에서 회자되며 네티즌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들이 바로 당대 중국에서 '투하오(土豪)'라고 불리는 극단적 속물의 전형이다. 이들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개혁개방 초기 남다른 사업수완으로 졸부가 된 '폭발호(暴發戶)'와는 다르지만 그들이 가진 문화적 취향과 금전만능주의의 태도에서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타의 젊은 속물들도 생존경쟁에서 승리하고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자기계발에 집중한다. 직업, 연봉, 자산가치, 심지어 자신의 몸과 외모 등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대개 자기반성과 성찰의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으며 부를 향한 뜨거운 열정은 후안무치하기까지 하다. 이전에는 속물이 일부 인간들의 특징이었다면, 속물적 정서가 전 사회를 지배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속물이 보편화되었다. 청년의 정치적 열정은 자본주의 대중문화의 감성으로 대체되었고, 그들은 청춘문화의 소비자가 되었다. 청년은 계몽과 이상주의 대신 부의 축적과 소비를 추구하는 주체가 되었다. 이들에게 있어 구매력, 살고 있는 집의 자산가치, 사회적 지위, 연봉은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속물의 정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체제 내에서 부를 축적하고 향유하는 이들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예된 속물, 즉 '잉여'를 양산한다.

잉여란 어떤 것의 남는 부분으로, 불필요하고 쓰임이 없음을 의미한다. 잉여는 체제 내에 포섭되어 있지만, 그 체제 내에 들어가지 못한 불합격품이자, 불량품, 그리고 찌꺼기이며, 이는 '쓰레기'와 의미론상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¹³⁾ 이들은

소비의 사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함 있는 소비자'들이며, '교역의 조건' '효율성' '생산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배제된 집단이다.¹⁴⁾ 이들은 스스로를 집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고 돈이 없어서 미래가 불투명한 '다오쓰(屌絲 하찮은 존재 혹은 '루저'의 의미)'라고 칭하며 자조한다. 사회적 지위, 돈과 집 등 세속적 가치로 평가될 수 없는 이 다오쓰는 사회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자 '잉여'로운 존재들이다. 백옥인은 이런 잉여의 존재들을 "체제 안에서 살지만 이상한 방식으로 체제에 포섭된 몸의 비뚤음 같은 존재"라고 말하며 이들의 성향은 "마조히즘과 사디즘을 오간다"고 평했다.¹⁵⁾ 다오쓰는 투하오의 과장된 금전적 과시와 저급한 취향에 대해 폄하하고 비난하지만, 그러면서도 부단히 노력하여 체제 내 속물이 되고 싶어 하는 자신을 조롱하고 비하하기도 한다. 이들은 사회에서 '결함 있는 소비자'로 분류되며,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분노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도 이 대오에 속하고자 노력하는 속물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태도는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다오쓰 문화(屌絲文化)'라고 하는 청년 하위문화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내용은 세태 풍자적이거나 스스로를 조롱하고 비하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3년 유쿠(優酷) 사이트에서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웹 드라마(網絡劇) 「萬萬沒想到」¹⁶⁾는 다오쓰의 전형으로 그려지는 주인공 '왕따추이(王大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심드렁한 표정과 혼잣말인지 대화인지 모를 낮고 빠르게 읊조리는 목소리는 사회적 불합리와 불평등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터뜨리는 혼자만의 불만이자 비굴하리만치 자기 합리적인 변명이다. 또한 다양한 현실적 상황과 고전(古典), 유명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발췌한 이야기와 장면의 단락들을 풍자와 왜곡, 패러디와 브리콜라주의 방

13)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옮김, 『쓰레기가 되는 삶들』, 서울: 새물결출판사, 2008년, 32쪽.

14)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옮김, 『쓰레기가 되는 삶들』, 서울: 새물결출판사, 2008년, 80, 81쪽

15) 백옥인, 「속물 정치와 잉여 문화 사이에서」, 『속물과 잉여』, 서울: 지식공작소, 2013년, 4쪽

16) 「萬萬沒想到」는 유쿠(優酷)에서 후난위성텔레비전(湖南衛視)과 그리고 완허텐이회사(萬合天宜公司)의 투자와 합작을 통해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로, 웹드라마 「屌絲男子」와 더불어 2013년 당시 방영 당시 네티즌 사이에서 인기 웹드라마 순위 1위를 기록하였으며 3.39억뷰(2013년 12월 11일까지의 통계)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이런 인기를 편승하여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되어 2014년 신년드라마(賀歲劇)로 방영된 바 있다.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설령 소극적 불만과 저항의 태도 이면에 강렬한 참여의 의지와 저항의 열정을 감추고 있다하더라도 겉으로는 타협과 달관의 고소(苦笑)로 드러난다. 이들의 배제적 입지는 청년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박탈했으며, 생존 경쟁의 질서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자조적이며 달관에 가까운 삶의 태도는 자기 환멸적이다.

4. 당대 청년의 정서구조

1) 성찰의 부재와 진정성의 소멸

진정성(authenticity)¹⁷⁾이란 청년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윤리적 규범이자 정신적 가치였다. 진정성은 성찰적 자아의 존재를 전제한다. “성찰적 자아는 내면과의 성찰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다시 이를 공적 영역에 실현 시키고자함”으로써 청년을 사회참여의 존재로 거듭나게 하였다.¹⁸⁾ 그들의 저항과 혁명의 열정은 진정성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 청년들의 자아 가치의 실현은 사회적 모순에 부딪히기 때문에 격렬한 시위 혹은 비판과 폭력 등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 정권의 억압에 좌절당하기도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고속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또 한 차례 새로운 사회건설과 문화 건설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망이 형성되었다. 이런 진정성의 정서구조는 1980년대 이후 문화열을 통해 사회에 대한 관심과 반성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청년과 학생을 중심으로 양극화, 부패와 부조리 등 고속성장에 수반되는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6.4는 중국 청년들의 삶의 가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공공영역에서 참여의 행동으로 터져 나온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17) 진정성의 어원은 그리스어 'authenkitos'로서 '자신(eauton)'과 'theto(정립)'의 결합에서 유래한 말이며, 자신을 정립하는 주체적이고 내면적인 태도와 동시에 그런 태도가 실현될 수 있는 공적지평에 대한 관심의 일면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김홍중,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한국사회학』 제43집 5호, 2009년. 3쪽. 재인용

18) 김홍중,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한국사회학』 제43집 5호, 2009년. 1쪽.

진정성은 곧 경찰국가의 억압과 진압에 좌절당하고 말았으며, 중국의 청년들은 진정성의 이상을 실현해보지 못한 채 무거운 실어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의 지배적 정감구조(structure of feelings)의 급격한 변동은 경제상황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권력형식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1992년 남순강화는 1980년대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90년대를 열어나가는 신호탄이었다. 그간 혁명 이데올로기로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었던 중국 사회주의 권력은 중국인들을 국가 체제에 헌신적이며 공공과 개인의 강한 연대를 통해 전투적이면서도 진지한 존재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회 자존감과 진정성에 상처 입은 청년들과 적막한 실어의 상태에 빠진 사회 모든 역량과 관심을 경제발전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드넓은 '시장의 바다'로 들어갔다(下海). 1992년 중국 경제는 화폐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정부의 기업화(자본화)' 체제를 확장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1990년대 후반 중국의 금융은 철저한 집중과 독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국가기구나 직접 결합하여 세계 금융 시스템 속으로 들어갔다.¹⁹⁾ 남순강화는 전 세계적 금융 자본체제로의 전면적 전환을 추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진정성의 정서와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 정체성 전위의 중요한 변곡점이기도 하다.²⁰⁾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출현한 '성공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속성장을 통해 '반쪽 얼굴의 신화'를 창조한 주인공이었다. 지금의 속물 사회의 속물주체의 원형이라 할 수 있지만, 당시 그들은 성공의 얼굴 뒤에 감추어둔 자신의 다른 얼굴을 대중에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 드러나지 않는 '반쪽 얼굴'이 바로 윤리적 삶의 기반이 되었던 '부끄러움'이었다. 부와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요함과 비열함은 그들에게 있어 '부끄러움'이었다. 이 부끄러움은 자기 성찰과 반성을

19) 원테켄 저, 김진공 역, 『현대 중국의 경험과 도전, 1949~2009: 여덟 번의 위기』, 파주: 들베게, 2016년, 24~25쪽, 286쪽.

20) 첨리첨은 그의 저서에서 1989년의 6.4 대학살이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6.4이후 중국 사회구조의 거대한 변동은 모택동 시대의 연속임과 동시에 새로운 등소평 시대의 특징을 가지며 이후 중국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 학자들이 1992년 이후를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보는 것처럼 첨리첨 역시 1992년을 6.4 체제 형성에 대한 역사적 발전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첨리첨 저, 연광석 역,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파주: 한울출판사, 2012년, 365-369쪽.

바탕으로 윤리적 삶을 형성하는 근간이었다. 1990년대까지는 진정성의 문화와 정서적 구조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후안무치를 아는 반성의 자아가 남아있던 시기였다. 성공인사의 '성공의 얼굴', 즉 건강함의 이미지, 세련되고 지적이며 서구화되고 선진화된 이미지는 비록 시장화 과정에서 급조된 이미지였다 해도 이들은 경제적 성공한 '새로운 영웅'의 형상을 구축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2000년대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시장과 경제구조에 완전히 합류하게 되면서 세계 금융경제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영향력에서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의 경쟁구도 안에서 생존은 청년의 절박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생존을 향한 이기심은 더 이상 내면적 자아를 통한 진정성을 길러내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진정성을 상실한 청년은 속물적 주체로 다시 탄생하게 되었다. 이들은 타자와 공존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적 삶보다는 도시에서의 생물학적 삶을 보다 안락하게 연장시킬 수 있고, 좀 더 나은 연봉을 받으며 고급세단을 몰고 좋은 별장식 아파트를 가진 생활을 누리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경쟁적 추구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진정성이 붕괴된 후의 청년주체는 정치 참여적 삶보다는 동물적 삶을 추구하며, 비오스(bios)가 되는 삶보다는 조에(zoe)가 되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²¹⁾ 속물적 주체의 탄생은 경제-권력 구조의 전환에 따른 주체성의 변화이다.

2) 청춘회고: 우울, 자조 그리고 낭만적 자아

2000년대 후반 중국의 대중문화는 청춘회고류의 영화, 드라마, 인터넷 소설, 마이크로 영화 등이 범람했다. 이런 회고 열풍의 소비층은 주로 80후, 90후 세대들이었다. 이들이 소비하는 청춘회고의 내용은 주로 학창시절을 포함하여 젊은 세대들의 현재 삶의 과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냉혹한 현실인식에서 출발

21) 조에는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것으로 살아있음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말한다. 비오스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특유한 삶의 형식과 방식을 말하며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의미한다. 조르조 아감벤 저, 박진우 역, 『호모사케르』, 서울: 새물결, 2008년, 33~35쪽.

한 자기반성과 자아 연민적 특징을 띠고 있다.²²⁾ 도시의 청년들이 겪는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은 개인의 태만과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또한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우울, 비참함은 기성세대가 질타한 것과 같이²³⁾ 의지박약과 나약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도적 틀과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단기 고용과 보장되지 않은 미래는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으며 이로 인한 좌절, 불안, 우울감이 양산되고 있다. 중국의 청춘회고의 영화를 소비하는 청춘들은 우울하고 자조적이다. 특히 청춘회고를 주제로 하는 영화와 마이크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학창시절에 대한 회고는 강렬한 로맨스의 경험과 이에 대한 실패와 아픔이 주를 이룬다.

로맨스의 실패와 아픔과 이에 대한 정서를 소비하는 것은 당대 사회에서 중국 청년의 정서적 무력감, 그리고 위안의 정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에바 일루즈에 따르면 “사심 없는 증여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관계의 우위성을 드러내는 데는 로맨스만한 것이 없으며”, “로맨스는 개인의 영혼과 육체의 영합을 찬양할 뿐 아니라 대안적 사회질서의 가능성마저 열어놓는다.”²⁴⁾ 이 유토피아적 로맨스는 자본주의 문화 상품 안에서 온전하게 존재한다. 로맨스는 경제적 교환가치와 생산가치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을 환기하고, 이에 대한 유토피아적 환상을 심어주는 위안의 기제로 작동한다. 청춘회고물에서의 연애는 낭만과 추억을 환기시키지만, 경제적 불평등, 교환가치, 권력 등과 같은 현실 문제에 의해 상처입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처한 현실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청춘회고물을 비롯한 대중문화의 소비문화 중심에 배치된 낭만적 자아는 이러

22) 고윤실, 「중국의 포스트 80세대의 '청춘회고'와 공공담론으로서의 '중국몽」, 『중국현대문학』 제72집, 2015년. 141쪽.

23) 인민일보에서는 청년들에게 팽배한 청춘회고열과 의기소침함의 정서를 경계하고 이를 타파할 것과 젊은이들에게는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와 도전정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류 미디어와 기성세대가 기대하는 청년의 이미지와 생존의 현실 속 청년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다. 80후 세대의 청춘회고에 관한 내용에서는 이 논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었다. 고윤실, 「중국의 포스트 80세대의 '청춘회고'와 공공담론으로서의 '중국몽」, 『중국현대문학』 제72집, 2015년. 143쪽. 재인용.

24) 박형신, 「감정자본주의와 사랑: 에바 일루즈의 짝 찾기의 감정사회학」, 『사회사상과 문화』 제 30집 2014년 12월. 44쪽.

한 유토피아적 환상을 통해 청년들이 이미 상실해버린 진정성과 내면의 추구를 소비자본주의적 감성으로 치환시킨다. 또한 중국의 청년들은 저항 의식을 표출하려 하여도 금지와 검열을 통해 투명성을 요구하는 정부의 정책 아래 줄곧 좌절당한다. 청년들의 저항과 개성의 표현은 하위문화적 취향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런 취향은 대중문화의 한 요소로 포함된다. 대중문화가 양산한 낭만적 자이는 공공영역에서 발휘할 수 없는 청년의 내면적 진정성의 가치를 사적인 영역에서의 연애와 로맨스의 추구로 드러나게 한다.

3) ‘萌’문화의 유행: ‘동물화된 귀여움’과 ‘사목적 권력’의 내재화

‘萌’이란 중국어로 본래 맹이라는 뜻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면서 귀엽고, 어리고, 작고, 앙증맞은 것을 의미한다. 본래 1980년대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유행과 이에 대한 하위문화의 하나로서 ‘모에(萌え)’라는 말이 유행하였는데, 귀여운 캐릭터를 선호하여 그것에 대한 모방, 코스플레이와 각종 문화상품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2005년 즈음에 모에는 일본의 최신 유행하는 말이 되었고, 그 즈음 이러한 문화적 영향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萌’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²⁵⁾ 본래 일본의 모에문화는 오타쿠족과 일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유행한 하위문화의 일종이지만, 중국에서는 15~45세 사이의 네티즌을 중심으로 귀여운 것을 선호하거나 표현하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와 관련된 유행어가 생겨났다. 중국의萌문화는 일본의 모에문화와 같이 특정 부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한 하위문화의 특징을 띠는 게 아니라,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유행하는 일종의 취향과 선호의 문화를 형성했다.

귀여움의 문화는 뽀띠부르주아(小資)적 생활, 소소하지만 여유를 즐기는 생활 방식을 일컫는 ‘샤오칭신(小清新), 샤오취에싱(小確幸)’이라는 문화와 함께 확산되기 시작했다. 공산당의 관방 웨이보가 부드러운 이미지와 아기자기한 장식으로

25) 胡靜, 『網絡文化傳播視域下的萌文化研究』, 北京郵電大學 新聞傳播學碩士學位論文, 2015年, 17쪽.

바뀌었는가 하면, 어리고 귀엽고 젊은 것을 선호하는 문화가 소비문화와 함께 확산되었다. 사람들의 몸짓, 표정, 행동, 말투에도 영향을 주었다.²⁶⁾ 동안과 젊음의 몸매를 유지하려는 유행이 생겨났고, 귀여운 소품을 즐기며,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소비형의 여유로운 생활방식을 즐기며 이를 과시적으로 SNS에 드러내기도 한다. 심지어 국가 주석인 시진핑도 만화 캐릭터로 표현되며, '시따따(習大大)'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귀엽다고 한다. '萌'은 어리고 작고 어린 어떤 것에 대한 선호이자 취향과 태도이며,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귀여운 것'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좋아하는 것'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쓰이게 되었다.

귀여움의 감정은 어린이와 약자에 대해 느껴지는 동정과 연민에서 비롯되는 애절한 감정이다. 귀엽고 어린 존재는 길들여지고, 사육되고, 강자의 세력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어른과 아이, 강자와 약자,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제 귀여운 것은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등 바람직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를 향유하는 문화의 주체는 이와 같은 '선(善)'을 내재화하게 된다. 이것은 당대 사회 조어로 환원된 '별거벗은 삶' 즉 '동물화된 삶'을 관리하여 '순종하는 신체'를 산출하는, 푸코가 말한 '생명권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²⁷⁾ 귀여움이 내포하고 있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는 억압과 통제를 통해 통치하는 권력으로부터 전환된 인간에 대한 관리이며, 의학과 과학을 통해 양육하고 사육하는 권력 즉 '사목적(司牧的) 권력'이다.²⁸⁾ 사람들은 이 모성적 권력 하에 있을 때 비로소 보호와 안전을 느끼며, 생존을 위한 육성과 배양의 대상이 됨을 스스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당대 중국의 대중문화의 현상을 통해 발견하는 탈정치, 탈내면, 탈성찰적인 모든 것들은 문화와 정서구조의 변동을 기늬할 수 있는 중요한 징후이다.

26) 萌萌噠, 麼麼噠, 蘿莉, 正太, 御姐, 萌叔 등 새로운 말이 유행했으며, 귀여운 표정과 과장된 귀여운 행동을 가리켜 '賣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7) 김홍중, 「삶의 동물/속물화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귀여움 — 87년 에토스 체제의 붕괴와 그 이후」, 『사회비평』 제36권, 2007년, 82-83쪽, 요약발췌.

28) 김홍중, 「삶의 동물/속물화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귀여움 — 87년 에토스 체제의 붕괴와 그 이후」, 『사회비평』 제36권, 2007년, 92쪽.

5. 나가며

당대 중국 사회의 대중문화 현상을 통해 청년주체의 소멸과 문화와 정감구조의 변동, 그리고 속물적 주체로의 전환 등을 살펴보았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 추세이다. 특히 속물사회의 출현과 속물적 주체의 탄생은 경제적 구조 변동과 이에 상응하는 권력의 전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엄격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관리자 권력, 그리고 관리의 구조 안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포획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통치의 권력으로 그 형식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탈정치, 탈정신, 탈내면, 탈성찰적인 사회로 탈바꿈 시켰으며, 사회적 정감구조의 변화는 사회변혁을 주도했던 진정성의 주체를 속물적 주체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중국사회의 정감구조는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중심으로 급격한 변환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역사적 변곡점의 시작에는 1989년의 6.4의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체제는 이른 바 '6.4 체제'라고 부르는 덩샤오핑 체제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소비 자본주의의 강화, 다양한 문화부족의 청년 세대들의 등장, 문화산업-뉴 미디어-대중문화라는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내며 욕망의 물질성을 확산시키고 있다. 당대 중국의 대중문화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들을 지켜보았을 때, 이들은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며 사회 변혁을 이끌어내는 추동력으로서 진정성의 주체라기보다는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긍정하고 이에 대한 추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속물'과 유예된 속물인 '잉여'가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속물화된 사회에서 과연 정치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비단 중국 사회뿐 아니라 우리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물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속물사회에서 조예로 전락한 속물 주체가 청년이 가진 성찰, 내면, 공적 영역에서 참여의 열정 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여기는 것은 아직은 선부른 판단이다. 생존과 경쟁 그리고 욕망의 물질성이 점철된 당대 사회에서 청년의 주체성은 더 이상 근대의 주체성의 실천과 같이 거친 파도처럼 전투적이고, 저항적이고, 진지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냉소와 자아 환멸의 태도 안에 묻힌 '잠류(潛流)'의 형태로 존재한다. 공공 담론의 영역, 문화 예술 실천의 영역 등에서 간헐적으로 드러나는 자발적 저항의 움직임과 정치 참여의 열망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속물 사회에서 새로운 정체성의 전환을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발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 잠류가 만들어 내는 소용돌이는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과 변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 강내희, 「근대 세계체제에 대한 68혁명의 도전과 그 현재적 의미」, 『문화과학』, 문화과학사, 2011년 9월호.
- 고운실, 「중국의 포스트 80세대의 '청춘회고'와 공공담론으로서의 '중국몽」, 『중국현대문학』 제72집, 2015년.
- 김홍중, 「삶의 동물/속물화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귀여움 — 87년 에토스 체제의 붕괴와 그 이후」, 『사회비평』 제36권, 2007년.
- 김홍중,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한국사회학』 제43집 5호, 2009년.
- 민정기, 「梁啓超의 '少年中國設' 독해 — '소년/청년' 소환의 중국적 맥락에 대한 고찰」, 『중국현대문학』 50집, 2009년 9월.
- 박형신, 「감정자본주의와 사랑: 에바 일루즈의 짝 찾기의 감정사회학」, 『사회사상과 문화』 제30집, 2014년 12월.
- 백옥인, 『속물과 잉여』, 서울: 지식공작소, 2013년.
- 원테권, 김진공 옮김, 『현대 중국의 경험과 도전, 1949~2009: 여덟 번의 위기』, 파주: 돌베개, 2016년.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사케르』, 서울: 새물결, 2008년.
-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옮김, 『쓰레기가 되는 삶들』, 서울: 새물결출판사, 2008년.
- 지그문트 바우만, 홍지수 옮김,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서울: 봄아필, 2013년.
- 첸리췌 저, 연광석 역,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파주: 한울출판사, 2012년.
- 葛紅兵, 姚新勇, 王韜: 「九十年代青年本位文化三人談」, 『青年探討』, 1997년04년.
- 胡靜, 『網絡文化傳播視域下的萌文化研究』, 北京郵電大學新聞傳播學碩士學位論文, 2015년.

呂途,『中國新工人:文化與命運』,法律出版社,2015年.

王建光,「義憤:從一種群體心態到話語力量的轉變 — 對當代中國憤青的一種文化解讀」,
『當代青年研究』,2009年01期.

趙雅妮·劉海,「青年文化的變奏:從青年的反叛到青年審美的文化消費」,『北京青年政治
學院學報』,2012年 01期.

<http://news.sina.com.cn/pl/2009-05-04/083517739436.shtml>

〈Abstract〉

‘Extinction of Young Adults’ and Change in Structure of Feelings
in Contemporary China

KO, Yoon-sil

Young adults in the 21st century have come to suffer from fierce competition for survival and anxiety about their future. They no longer form a central point through sense of community and common good, and they have become fragmented as ‘separately-existing us’ or ‘individuals extinguishing alone.’ This appears more apparently in cultural phenomena and subcultures of resistance and defiance are consumed as individuality and youth is commercialized. Young adults who grew mature through internal reflection and contemplation were named based on various cultural traits and distinction of generation, and they have become the principal agents of consumption. Polarization of cities and rural areas in China has become even more serious and survival has emerged as dire problem for young adults in competition structure represented by ‘survival of the fittest’ and ‘winner takes it all.’ Selfishness for survival prevented genuineness from growing up through inner self, and young adults who lost this genuineness have come to be born again as snobbish subjects, which takes place not only in China but also around the whole world including Korea. Especially, appearance of snobbish society and rebirth of snobbish subjects are deemed to be related with change in economic structure and corresponding transposition of power. Radical change in the dominant structure of feelings in China is linked with the change in the

form of power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economic conditions. This structure of feelings in Chinese society faced a turning point of rapid change at them time of Den Xioping's 'Addresses in the Southern Provinces (南方讲和).' At the beginning of this historical point of inflection lay 6/4 Tiananmen Square Massacre in 1989. Since then, Chinese system has been on the continuum of Deng Xioping's system called '6/4 system', which has strengthened consumption capitalism, produced emergence of various cultural tribes of young adult generation and created a new structure of cultural industry-new media-mass culture, spreading the materialism of desires. Now, snobbish emotions have taken firm root widely in overall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From white collar workers to farmers in rural areas as well as young adults are willing to spend their whole life to accumulate wealth and earn social status, and shameless pursuit of these values means formation of structure of feelings which puts these values before anything else and does not feel ashamed of it. This has changed everything from individual way of thinking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way of daily lives. This study explores the changes in Chinese young adults' culture and structure of feelings through analysis of popular discourse on 'extinction of young adults', popularization of cuteness (萌) culture, phenomenon of retrospection of youth and various sub-culture phenomena of young adults.

Key Words: Contemporary China, Young adults, Surplus Snob, *Diaosi* (屌丝), *Tuhao* (土豪), Structure of feelings

이 논문은 2016년 10월 18일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11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